

張子和의 生涯 및 刺血理論에 關한 研究

中國天津中醫學院·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金 軍·尹暢烈

Study Of the Zhang Zi-He's XieXue method

Jin Jun·Yoon Chang-Ryel

Tianjin University of Traditonal Medicine·Dept. of Oriental Class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 Jeon University

Zhang Zi-He is one of the Jin&Yuan's four masters, and he used Dong-Xia method well, as well as he is one a medical man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He valued the pathogen. He recognized that the pathogen is a great cause of an attack of a disease, so, first, we have to get rid of pathogen, and it makes the Vital essence and energy recovered. He said, we have to get rid of the pathogen thouroughly. He used "Wei Ci"-using fei zhen and densely puntuating many times and bleeding much, so the pathogen can't remain. He said if we bleed, it is same as the sweating. And about 『Nei Jing』's meaning, he said that bleeding is same as sweating and after bleeding, diaphoresis is not required, but it is good to bleed after sweating. He said that we removeing the fire and we can circulate Qi and blood. He set count on the body's circulation of our body, and it is the great cause of a disease. So, He quoted the 『Nie Jing』's sayings, and emphasized the importane of the circulation of qi and blood. And this Zhang Zi-He's way is in relation with "Liu He Jian's fire and heat theory.

key words : Zhang Zi-He, Dong-Xia method,

I. 緒 論

張從正的 字는 子和이고 號는 戴人이며 睢州 考城(지금의 河南省 蘭考縣東)사람이다. 대략 金 나라 海陵王 正隆元年(1156년)에 태어나서 金 哀宗 正大五年(1228년)까지 살았으며 金時代의 저명한 醫家이다. 그는 일찍이 軍醫를 지낸 적이 있

었고 金 宣宗 興定年間(1217~1222년)에 太醫院에 불러 들어가 잠시 벼슬을 한 적도 있으나 곧 사직하고 물러나 麻知幾, 常仲明 등과 함께 매일 澧水(河南省 許昌北에 있는 汝河)가에서 머물면서 醫理를 講論하였다. 그의 醫術은 대단히 뛰어나 당시의 사람들은 “望而盡其工 聞而盡其巧 問而盡其神 切而盡其聖 集工巧神聖於張從正一人”이라고 칭송하였으며 神醫라고도 불렀다.

그는 『內經』과 『難經』의 이론을 꿰뚫고 劉河間을 私淑하였지만 그의 獨創性으로 인해 金元四

* 交信著者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yooncy@dju.ac.kr.

大家中 攻下派의 創始者가 되었다¹⁾. 그의 대표저작인 『儒門事親』十五卷은 그의 原著인 『儒門事親』十卷을 바탕으로 『治病百法』, 『十形三療』, 『雜記九門』, 『三法六門』 등의 몇 가지 著書가 추가되어 구성된 叢書이다. 張從正의 學術的인 특징은 六門三法으로 개괄할 수 있다. 그는 劉完素가 주장한 六氣致病의 理論을 따라 各種의 疾病은 主로 六淫의 邪氣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인식하여 疾病을 風, 寒, 暑, 濕, 燥, 火의 六門으로 나누었고 邪氣의 侵入으로 疾病이 發生하면 疾病을 치료하는 方法은 邪氣를 驅逐하는 것이 主原則이고 그 구체적인 方法이 바로 汗, 吐, 下 三法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三法에 정통하여 당시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치료효과도 훌륭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性格이 孤傲하고 당시 補法을 爲主로 하는 醫學界와 主 마찰을 빚어 그가 提倡한 “驅邪所以扶正”의 學術的인 觀點과 이로 말미암아 創新된 攻病三法은 동료의사들에 의해 큰 排斥을 받았다. 게다가 汗吐下의 治法은 王公大人들의 要求에는 符合하지 않았으므로 말년을 더욱 쓸쓸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張子和가 汗, 吐, 下의 三法을 사용하여 邪氣를 除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藥物治療의 方面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儒門事親』의 내용을 고찰해볼 것 같으면 그는 『黃帝內經』의 이론과 처방, 그리고 劉河間의 “火熱論”의 사상을 계승하여 刺血法을 운용하여 많은 질병을 치료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저자는 張子和의 刺血法에 대한 研究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며 본 논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生涯와 著書에 대한 簡介

1) 生涯

張子和의 이름은 從正이며 字는 子和이고 金代 睢州 考城사람이다. 考城이란 地域은 周나라 戴國이 있었던 곳이기에 張子和는 스스로 ‘戴人’이라 하였다. 張子和의 生卒年은 明確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儒門事親』중의 “正隆年間” 및 “戊子年火運”이란 文句로부터 그가 1156~1228年 사이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張子和의 故鄉에 대하여 ‘睢州’, ‘宛州’, ‘陳州’, ‘鄆州’라는 각기 다른 說이 있는데 『歸潛志』, 『四庫全書總目提要』, 『醫學讀書志』, 『心印紺珠經』, 『醫籍考』 및 『儒門事親·十形三療』등 著書에 각기 달리 기록되어 있다.²⁾ 그중 비교적 공통적인 견해는 睢州 考城人이라는 것이며, 바로 지금의 河南省 蘭考縣이다. ‘睢州’와 ‘考城’에 대한 자료를 考察한 結果, 더욱 구체적으로 指摘한다면 그의 고향은 지금의 蘭考縣과 民權縣사이로 考證된다. ‘陳州’는 그의 한 자택이 있었던 곳이며 張子和가 中年이후에 오랫동안 주거 했던 곳이다. ‘宛丘’는 陳州管轄의 所屬縣으로서 지금의 河南省 淮陽縣 동남쪽의 沈丘地域이며 潁河의 上流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歸潛志』에서 “張子和久居陳”이라고 말한 것과 張子和가 『儒門事親·小兒瘡疱丹燥癩疹舊蔽記』에 말한 “近年, 予之莊鄰, 沿蔡河來往”이라고 한 내용, 그리고 李濂이 『醫史』에서 말한 “張子和 …… 日遊澠水之上”이라고 한 內容과 서로 符合된다. ‘鄆城’은 ‘考城’을 잘못 쓴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鄆城은 山東 濟陰城 武縣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南部와 北部로 나뉘어져 있으며 또한 서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張氏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醫書를 공부하여 醫學基礎가 충실하였다. 『儒門事親』卷一에는 “余承醫學於先人”, “余自先世授以醫方, 至於今日, 五十餘年”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張氏는 性稟이 剛直하고 함부로 世上 일에 따라 浮沈하여 거스르지 않았다. 『歸潛志』에 張子

1) 王富龍等編著, 醫古文,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1999, p. 208.

2) 葉川,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 67

3)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76.

和는 “爲人放誕, 無威儀, 頗讀書, 作詩, 嗜酒.”라고記載되어 있다⁴⁾. 또한 그는 “竹林七賢”의 성격을 갖고 있어 權勢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을 蔑視하였으며 卑屈하고 굽실거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였다. 子和는 金나라 興定(1217~1222년)時期에 太醫로 뽑혀 일한 적이 있었는데 남한테 卑屈하게 阿諛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또한 그는 독창적으로 攻下法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太醫들이 溫補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容納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벼슬을 포기하였으므로 그가 太醫로 있었던 期間은 그다지 길지 않다. 『十形三療·腰膀痛』에서 “今人以醫辟奴, 故醫之道廢. …… 常見官醫迎送長吏, 馬前唱諾, 眞可羞也.”⁵⁾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官醫들과 같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張子和는 隱歸를 擇한 것이라는 記錄이다. 그는 “非故與世參商, 方鑿元柄, 自然齟齬者.”(『儒門事親·證口眼喎斜是經非竅辨』)⁶⁾이라고 하였고 隱退한 후 친구들과 함께 일의 機微를 알아채고 형제선배들과 滌水를 觀光하며 奧義를 解明하고 深奧한 道理를 분석하면서 평소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治療經驗들을 冊으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儒門事親』이다. 책 이름을 이렇게 지은 목적은 “儒者能明其理, 而事親者當知其醫也”라는 뜻이다.

張子和는 一生을 金나라 時代에서 지냈고 五十歲前에는 社會가 安靜하고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政治와 文化가 繁榮하였다. 그러나 張子和의 五十歲이후에는 宋나라와 金나라 사이에 다시 戰爭이 일어나서 戰亂이 그치지 않았고 國民들의 생활도 힘들어 졌다. 張子和는 泰和六年 丙寅(1206년)에 南徵한 軍士들을 위하여 瘡癰瘡疾을 치료해주었는데 “儒門事親”卷二에 “余向日從軍於江淮之上.”이라고記載되어 있다. 張氏의 晩年の 생활은 편안치 못하였고 世상이 混雜하고 戰爭이 頻繁하였다. 興定三年(1219년)에 쓴 記事詩가 있는데 “齒豁頭童六十三, 邇來衰病百無堪. 舊遊馬上

行人老, 不是當初過汝南.”, “耽嗜醫經五十年, 野芹曾獻紫宸前. 而今憔悴西山下, 更比文章不值錢.”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⁷⁾ 이때 그는 이미 太醫를 辭職하고 汝河지역으로 돌아 왔다. 비록 그는 “名重東州”하였으나 생활형편의 變化에 따라 心身에 많은 상처를 받아 아무래도 意氣가 消沈하고 感慨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 博覽群書

張氏は『內經』을 크게 推仰하여 “醫之善, 惟『素問』一經爲祖.”⁸⁾(『儒門事親·雜記九門』)라고 主張하였기 때문에 그는 病理를 논하고 治法을 정할 때 언제나 『內經』의 精神을 闡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儒門事親·立諸時氣解利禁忌式』에서 “終不肯以數年之功, 苦讀『內經』, 但隨衆好惡, 爲之毀譽. 若此者, 皆妄議者也.”⁹⁾라고記載한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內經』을 重視하였는가를 더 한층 알 수 있다. 『金史·張從正傳』에서 “世傳黃帝岐伯所爲書也, 從正用之最精”이라고 말하였다. 張氏는 『內經』외에 仲景의 攻邪去實의 要旨와 劉河間의 善用寒涼藥하는 方法의 啓發을 받았으며 그의 汗, 下, 吐 등의 方法은 바로 『傷寒論』을 바탕으로 發揮하여 使用範圍를 넓인 것이다.

張子和는 『內經』, 『難經』, 『傷寒論』을 깊이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책을 읽었다. 예를 들면 先秦의 著作인 『周易』, 『周禮』, 『尙書』, 『論語』, 『禮記』, 『老子』, 漢代 班固의 『漢書』, 『呂氏春秋』, 司馬遷의 『史記』, 王符의 『潛夫論』, 魏晉時期 嵇康의 『養生論』, 南北朝時期의 『後漢書』, 『黃庭經』, 唐나라 顏師古, 韓昌黎, 元稹, 그리고 宋나라 陸象山 등의 著書들을 博覽하였다.¹⁰⁾ 張子和의 博學精神은 여전히 後世醫家들이 배워할 본보기이다. 『儒門事親·攻裏發表寒熱塗箴』에서 “乃知學不博而欲爲醫難矣!”라고 기록되어 있다.

4) 『中國醫學大成續編』, 嶽麓書社出版, 1992, p. 36

5)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74.

6)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58.

7) 張從正, 『子和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34.

8)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96.

9)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3.

10) 『中華醫學名著寶庫』, 九州圖書出版社, 1999, p. 94

3) 著述

張子和가 쓴 『儒門事親』十五卷은 그의 原著인 『儒門事親』十卷을 바탕으로 하여 『治病百法』, 『十形三療』, 『雜記九門』, 『三法六門』 등 몇 가지 著書로 구성된 叢書이다. 이런 著書들은 모두 張氏가 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가 主張한 學術思想이고, 張氏가 最初로 創設하고 弟子들이 潤色하여 다듬은 것이며 綜合하여 『儒門事親』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儒門事親』은 모두 十五卷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卷一, 二, 三은 張子和의 學術思想과 臨床經驗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고 卷四, 五中的 『治病百法』은 各種疾病의 證治를 소개하였으며 百病의 理法方藥과 刺血法을 논술하였다. 卷六, 七, 八은 『十形三療』로서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外傷, 內積, 外積 등 十個의 形을 綱要로 삼아 汗, 吐, 下 등 三法을 治則으로 하여 內科, 外科, 產婦人科, 兒科 등 臨床各科의 約 139個의 醫案을 소개하였는데 辨治方法이 독특하고 治療效果도 뚜렷하며, 또한 그 속에 刺血法에 관한 많은 醫案도 수록하였다. 卷九는 『雜記九門』으로서 正面으로 證治大法을 논술하지 않고 方外之方과 法外之法을 소개하였으며, 또한 他人의 誹謗에 대하여 느껴서 발휘한 내용도 記錄되어 있다. 卷十은 『撮要圖』로서 주로 『內經』과 『難經』의 일부 內容을 근거로 하여 약간 擴充한 것이다. 卷十一은 『治病雜論』으로서 運氣學說과 疾病의 發病, 證候, 治療와의 밀접한 관계를 討論한 것이 특징적이고, 刺血法을 사용한 곳이 모두 네 곳이 있다. 卷十二는 『三法六門』으로서 張氏의 汗, 吐, 下 등 三法의 特異의인 方劑 및 風, 寒, 暑, 濕, 燥, 火 등 여섯 개 病證을 치료하는 方劑를 소개하였는데 體驗과 病例가 一致되어 있고 藥物, 藥量, 用法이 아주 完備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중 引用한 古方들은 여러 차례 變更되었는데 이것은 張氏가 臨證應變한 것이며 그가 古方을 비록 참고하였으나 너무 그에 구애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卷十三은 『劉河間先生三消論』으로서 張氏는 劉河間의 傳授를 받은 者이고 또한 “因在前此

書未傳於世, 恐爲沈沒, 故刊而行之”라는 것을 고려하여 張氏의 門人들의 校勘, 潤色, 刊行한 것이다. 따라서 劉河間의 『三消論』과 三消를 치료하는 方藥이 지금까지 流傳될 수 있었던 것이다. 卷十四는 『治法心要』로서 古代名醫와 名著中の 治法要訣을 總括하여 논술한 것이며 病因, 病機, 治則 등 要點을 논술하였다. 卷五는 『世傳神效名方』으로서 先賢들의 婦科, 小兒科, 外科, 五官科 및 疑難雜症을 치료한 經驗方을 수집한 것이며 단지 한곳에서 刺血法을 提起하였다.

이 외에 『心鏡別集』은 常德이 쓴 것으로서 비록 『儒門事親』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張氏의 學說이며 常德(常仲明, 張氏의 제자)이 加工하고 潤色하여 지은 것이다. 이 책은 모두 七卷으로 되어있는데 앞의 四篇은 汗, 吐, 下 등 三法의 內容을 補充하여 논술한 것이고 뒤의 三篇은 風症, 傷寒傳經 및 亢害承制의 觀點을 논술한 것이다.

姜春華가 編著한 『歷代中醫學家評析』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張子和의 著書中에서 一部分은 이미 유실되었고, 유실된 부분은 『三復指迷』一卷과 『張氏經驗方』二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張子和의 刺血法의 淵源과 學術思想

1) 學術的 淵源

刺血法의 學術적 淵源은 아주 오래되었다. 中醫學의 체계적 醫學經典인 『黃帝內經』에는 刺血法과 關聯된 많은 內容들이 記載되어 있다. 『內經』의 總162篇의 內容 중에 刺血과 關聯된 內容이 모두 4篇이나 된다. 『靈樞·九鍼十二原』에는 “苑陳則除之”라는 治療原則을 제시하였고 『素問·鍼解』에서는 “苑陳則除之者, 出惡血也”라고 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血實宜決之”라고 하였고, 『素問·調經論』에서는 “血有餘, 則瀉氣盛經, 出其血”이라고 하였다. 『內經』 중의 이런 論述들은 張子和의 刺血法에 대한 理論적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

『儒門事親』에서 張子和가 臨證時에 자주 『內經』의 말을 引用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瘡非脾寒及鬼神辨』에서 “會陳下有病瘡二年不愈者，……乃取『內經·刺瘡論』詳之，曰：諸瘡不已，刺十指間出血。”이라고 하였으며, 『治病雜論』에서는 “經云：火鬱發之，開導之，決之。可用金非針 出血則愈. 『靈樞經』云：奪血者無汗，奪汗者無血。血汗俱蕩，豈不妙哉!” 라고 記載하였다.

그리고 張氏는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大煩熱，晝夜不息，刺十指間出血，謂之八關大刺”라고 하였으며 瘡瘍을 치료할 때 “砭射之”，“石而泄之”해야 한다고 하였다.

張子和는 『內經』과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을 받아 과감히 실천하고 創新을 하였으며 刺血法을 이론과 임상 모두에서 前例 없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2) 張子和의 刺血法의 學術思想

(1) 邪氣를 重視하였다.

張子和는 邪氣의 侵襲은 发病의 중요한 要素라고 認識하였다. 따라서 病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먼저 邪氣를 攻해야 하고 邪氣가 除去되어야 正氣가 회복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儒門事親·汗下吐三法該盡治病詮』중에서 “夫病之一物，非人身素有之也。或自外而入，或由內而生，皆邪氣也。邪氣加諸身，速攻之可也，速去之可也，攬而留之，可乎？……先論攻其邪，邪去而元氣自復也。”¹¹⁾라고 하였고 邪氣의 來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즉 하나는 外邪侵襲이고 또 하나는 七情所傷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張子和는 攻邪에 主力하였고 邪氣가 없어져야 正氣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邪之中人，輕則傳而久自盡，頗甚則傳久而難已，更甚則暴死.”라고 하였으며 이는 邪氣가 人體를 侵犯한 이후에 세 가지 傳變을 일으키는데, 첫째는 病이 輕하여 邪氣가 스스로 消滅되어 发病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病이 아주 심하여 傳變되어도 스스로 낳지 않아 治療가 필요한 것이며, 세 번째는 病이 더욱 심하여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張氏는 臨床治療에서 “良工之治病，先治其實，後治其虛，亦有不治其虛時”라고 하였는데 이곳에서 말한 實은 邪氣가 實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虛는 正氣가 虛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良醫는 病을 치료할 때 病의 實을 먼저 치료하고 후에 虛를 치료하며 때로는 攻邪만하고 補虛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邪去而元氣自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張氏는 主張하였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張子和가 病을 치료할 때 分析을 하지 않고 덮어놓고 攻邪만 한 것이 아니고 虛實을 辨明하여 邪氣가 實하면 攻하고 正氣가 虛하면 補하였으되, 단지 邪氣를 祛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오직 “脈脫下虛，無邪無積之人”이어야 補法을 쓸 수 있고, 만약 有邪有積인 환자에게 補法을 쓴다면 마치 “鯀湮洪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서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儒門事親·汗下吐三法該盡治病詮』에서 “況予所論之法，識練日久，至精至熟，有得無失，所以敢爲來者言也”¹²⁾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張子和의 攻邪之法이 이미 精密하고 熟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金非針을 사용하여 放血하는 方法은 그의 ‘攻破’와 ‘祛邪’의 治療思想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준 것으로, 즉 『素問·離合眞邪論』에서 말한 “此攻邪也，疾出以去盛血，而復其眞氣.”라는 것이다. 이런 內容들은 모두 張氏가 刺血法을 활용하는 중요한 指導적 思想이 되었다.

(2) 邪氣를 몰아내기를 철저히 하였다.

張子和는 醫術이 정밀하고 깊었으며 膽力과 識見도 뛰어났다. 그가 汗, 吐, 下法을 사용할 때 환자가 자주 ‘暈眩’증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藥의 사용량이 最大值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儒門事親·凡在上者皆可吐式』에서 “吐至昏眩，慎勿驚疑. 『書』曰：若藥不暈眩，厥疾弗瘳”라고 하였다. ‘用藥暈眩’이라는 것은 실은 깨끗이 驅邪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張子和의 刺血法도 역시 驅邪務盡의 思想이 나타나 있다. 그의 刺血法은

11)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1.

12)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0.

세 가지 特徵이 있다. 즉 이는 “三多”로 金非針을 많이 사용하였고 출혈량이 많았으며 침자수가 많은 것이다. 『儒門事親』에 19個의 刺血法에 관한 醫案이 기록되어있고 10個의 醫案에 金非針을 運用 한 내용을 기록하여 밝혀 놓았다. 金非針은 九針 중의 “鈹針”으로써 침 끝이 날카로워 비교적 큰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출혈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針刺한 부위와 수량이 많았고 때로는 百餘個나 달하는데 이는 역시 출혈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三多”의 목적은 단 하나로 出血량을 증가시켜 體內的 邪氣로 하여금 出血을 따라 體外로 驅出되게 하는 것이며 털끝만큼도 남아 있지 않게 驅邪의 목적을 달하기 위한 것이다.

張子和는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에 自身이 目疾에 걸려 치료했던 醫案을 기록하고 있다. 즉 “余嘗病目赤, 或腫或翳 …… 上星至百會, 速以金非針 刺四, 五十刺, 攢竹穴, 絲竹穴上兼眉際一十刺, 反鼻兩孔內, 以草莖彈之出血. 三處出血如泉, 約二升許.”¹³⁾라고 記載하였다. 그는 『十形三療·背疽』에서 “一富家女 …… 患背疽如盤 …… 戴人以金非針 繞疽暈刺數百針, 去血一斗.”라고 하였다. 張氏는 이 병을 치료할 때 “圍剿”의 手法을 採用하여 金非針 으로 嘑嘑하게 數百針을 刺하고 출혈량이 一斗에 달하게 하여 邪氣로 하여금 남아있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았다. 이는 張子和의 邪氣를 철저하게 驅逐한 思想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표 1. 張子和의 臨證의 “三多” 特徵

病名	穴位	道具	出血量
癰疾	十指		
雷頭風	患部	金非針	
抽搐	百會	金非針	二盃
腎風	患部	金非針	大出血
嗽血	鼻內	草	半升
面腫風	鼻內	草	大出血

大暑	頭		
目赤	上星, 百會, 攢竹, 絲竹, 鼻內, 眉際	金非針	出血如泉
暴盲	鼻中, 攢竹, 神庭, 上星, 顯會, 前頂, 百會		大出血
目竅	頭, 眉上, 鼻中		
喉痺	患部, 少商		
舌腫	患部	金非針	盈斗, 二盞
背疽	患部(數百針)	金非針	一斗
坐癰	委中	金非針	
濕癬	患部(百餘針)	金非針	血出盡
瘤	委中, 患部		大出血
膠瘤	患部	金非針	
面赤腫	患部(數十針)	金非針	
小兒眉煉	患部	金非針	
小兒丹瘤	患部	磁片	

(3) 出血同汗論

張子和는 『儒門事親·偶有所遇厥疾獲瘳』에서 “凡出血者, 乃發汗之一端也.”라고 직접적으로 出血同汗의 理論을 提出하였다.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에서 “以其血在表, 故宜汗 …… 出血之與發汗, 名雖異而實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出血法은 또한 汗法의 不足을 補充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儒門事親·喉舌緩急砭藥不同解』에서 “『內經』: 火鬱發之. 發, 謂發汗, 然咽喉中豈能發汗, 故出血者, 乃發汗之一端也.”¹⁴⁾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內經』을 精密하고 깊이 研究하여 그중의 독특한 理致를 깨달았다. 『內經』에서는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많은 醫家들은 陰液이 크게 손상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失血한 者는 發汗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린 者는 刺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認識하였지만 張子和는 “出血乃發汗之一端”이라는 觀點으로 內經의 이 뜻을 理解하여 出血과 發汗은 同一한 것으로써 刺血後에는 發汗이 필요 없지만 發汗後에는 刺血하는 것이 적당하다

13)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8.

14)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69.

는 이론을提起하였다. 따라서 그는 “血汗俱蕩, 豈不妙哉!”(『治病雜論·風論』)라고 하였다.

(4) 刺血瀉火하여 氣血을 疏通시켰다.

張氏는 人體의 氣血流通에 대하여 아주 重視를 하였고 氣血流通의 正常與否는 發病의 重要原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張子和가 『內經』을 깊이 연구하여 얻은 結論이었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必先五勝, 疏其血氣, 令其調達, 而致和平, 此之謂也”라고 하였으며 張子和는 임상의 검증을 거쳐 “『內經』一書, 惟以氣血流通爲貴.”(『儒門事親·凡在下者皆可下式』)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張氏는 氣血壅滯는 火熱之邪에 의하여 發生된다고 主張하였으며 “治火之法……最宜出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張氏가 臨床에서 應用한 瀉火法은 모두 刺血法인 것이다.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에서 “豈知日不因火則不病……能治火者, 一句可了. 故 內經曰: 熱勝則腫……在針則神庭, 上星, 顙會, 前頂, 百會. 血之翳者, 可使立退; 痛者, 可使立已; 昧者, 可使立明; 腫者, 可使立消.”¹⁵⁾라고 하였고, 『治病雜論·風論』에서는 “若是雷頭者, 上部多有赤腫結核, 或面熱無汗, 經云: 火鬱發之, 開導之, 決之. 可用金非針出血則愈.”¹⁶⁾이라고 하였다. 張氏는 반복적으로 『內經』의 말들을 引用하여 刺血法으로 瀉火하여 氣血을 流通시키는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張子和가 刺血法으로 瀉火하여 氣血을 소통시키는 方法은 劉完素의 “火熱論”의 學說사상과 關係가 있다. 劉完素는 “六氣皆從火化”, “五志過極皆爲熱甚”이라는 病因病機理論을 제출하였으며 모든 疾患의 최종 轉歸는 모두 化火되므로 寒涼藥을 사용하여 治療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劉氏는 實熱證의 治療할 때 역시 刺血法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大煩熱, 晝夜不息, 刺十指間出血, 謂之八關大刺.”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劉完素를 私淑하였지만 刺血法에 대한 造詣는 劉氏보다 높았다.

(5) 十二經脈의 氣血多少에 根據하여 瀉血하였다.

張子和는 임상에서 十二經脈의 氣血多少를 刺血法을 사용하는 基準으로 삼았다. 그는 “血多之經刺之, 能祛邪而不傷血; 血少之經刺之, 則使血受損而正不足, 有助長邪氣之虞.”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에서 “故血出者, 宜太陽, 陰陽. 蓋此二經血多故也. 少陽一經, 不宜出血, 血少故也. 刺太陽, 陽明出血, 則目愈明; 刺少陽出血, 則目愈昏. 要知無使太過不及, 以血養目而已.”¹⁷⁾라고 하였으며 太陽과 陽明經의 穴을 取하여 刺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主張하였다.

예를 들면 『十形三療·瘞癰』에서 “一省瘞, 背項常有瘞癰, 愈而復生. 戴人曰: 太陽, 血有餘也. 先令湧泄之. 次於委中以金非針出紫血, 病更不復作也.”라고 記錄하였다. 委中은 血郄이라고도 하며 足太陽膀胱經의 合穴이다. 이 醫案은 張氏가 多血한 太陽經脈의 穴을 取하여 병을 治療한 事例이다. 그리고 『十形三療·腎風』에도 類似한 기록이 있는데, 즉 “偏腫之處皆針之, 惟不針目眦外兩旁, 蓋少陽經, 此少血多氣也.”¹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張子和는 放血할 때 아주 慎重하였고 절대로 輕率하게 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張子和가 이토록 經絡氣血의 多少를 重視하게 된 것은 역시 『內經』을 본받은 것이다. 『素問·氣血形志篇』에서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太陰常多氣少血.”¹⁹⁾이라고 하였는데 張子和는 『內經』중의 氣血理論을 刺血法에 活用함으로써 『內經』의 理論을 한층 더 發展시켰다.

III. 結 論

張子和는 『黃帝內經』과 劉河間의 “火熱論”의 影響을 받아 과감히 실천하고 創新을 하였으며 刺血法을 이론과 임상에서 모두 크게 발전을 시

15)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6.

16)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21.

17)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6.

18)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4.

19) 黃帝內經素問語釋,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p. 63

켰다. 따라서 그를 한 時代의 刺血法의 宗師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金元時代 醫學의 創新과 發展에 대하여 卓越한 貢獻을 한 醫家라고 評價할 수 있다. 그의 生涯 및 刺血法의 淵源과 學術思想에 대한 考察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그가 쓴 『儒門事親』十五卷은 실지는 張子和의 原著인 『儒門事親』十卷을 바탕으로 하여 『治病百法』, 『十形三療』, 『雜記九門』, 『三法六門』 등 몇 가지 著書로 이루어진 叢書이다. 이런 著書들은 모두 張氏가 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가 論說한 것으로써 張氏가 처음으로 創設하고 弟子들이 潤色하여 다듬은 것이다.
2. 張子和는 임상에서 刺血法의 運用에 대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견해를 主張을 하였다. 邪氣의 侵襲은 發病의 중요한 要素라고 認識하였고 따라서 病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먼저 邪氣를 攻해야 하고 邪氣가 除去되어야 正氣가 회복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3. 驅邪를 할 때 남김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病을 치료할 때 『圍剿』의 手法을 採用하여 金非針으로 數百針을 刺하고 出血量이 一斗에 달하게 하여 邪氣로 하여금 남아있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4. 出血同汗論을 주장하였으며 “出血乃發汗之一端”이라는 觀點으로 內經의 뜻에 대하여 出血과 發汗은 같은 것으로써 刺血後에는 發汗이 必要없으나 發汗後에 刺血하는 것이 適宜하다고 주장하였다.
5. 瀉火하여 氣血을 疏通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人體의 氣血의 流通에 대하여 아주 重視를 하였고 氣血流通의 正常與否는 人體에 病을 일으키는 重要한 原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張氏는 반복적으로 『內經』의 말들을 引用하여 刺血瀉火하여 氣血을 流通시키는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며 張子和가

刺血法으로 瀉火하여 氣血을 疏通시키는 것은 또한 劉完素의 “火熱論”의 學術思想과 關係가 있는 것이다.

6. 十二經氣血의 多少에 根據하여 瀉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張子和는 임상에서 刺血法을 사용할 때 十二經脈氣血의 多少를 基準으로 삼았으며 그가 經絡의 氣血의 多少를 重視한 것은 역시 『內經』을 본받은 것이다.

上記 다섯 개 主張중 “驅邪務盡”과 “瀉火疏通氣血”論은 처음으로 提起한 觀點이다. 그는 疾病의 治療에서 주로 汗, 吐, 下의 方法을 사용하여 祛邪를 하였으며 『黃帝內經』중의 氣血理論을 刺血法에 運用함으로써 『黃帝內經』의 理論을 한층 더 發展시켰다.

參 考 文 獻

1. 金元四大家.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年6月第1版
2. 羅天益. 『衛生寶鑑』. 商務印書館. 1959年11月初版劉河間.
3.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5月第1版
4. 葉川.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年1月第一版
5. 『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8年1月第1版 李挺.
6. 張從正. 『子和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6年10月第1版
7.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年1月第一版
8. 『中國醫學大成續編』. 嶽麓書社出版. 1992年9月第1版
9. 『中華醫學名著寶庫』. 九州圖書出版社. 1999年1月第1版
10. 王富龍等編著. 醫古文.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1999年
11. 『黃帝內經素問語釋』.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年10月第1版